

退溪思想에서의 學의 概念

慶北大學校 教授 宋 兢 變

《目 次》	
I. 序 論	1. 理의 探求
II. 退溪의 學問形成	2. 本分の 自覺
1. 名利榮達의 超越	3. 異端의 排擊
2. 退去의 眞意	IV. 結 論
III. 學의 意味	附：論學書簡錄

I. 序 論

退溪의 學問形成은 그의 一生을 통해서 볼때 前・後期 두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해 야 할 것이다. 前期는 退溪가 學問을 위하여 官界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한 이른바 「退去之念」을 확고히 한 때부터이다. 그러나 退去를 결심했다고 하여도 그 즉시 學究에 專念할 수 있는 狀況이 許諾된 것이 아니라 줄곧 그 결심을 堅持하면서 學의 探求를 위하여 逆境의 克服에 힘을 기울리고 있었던 時期이다. 이時期는 43歲에서 『天命圖』가 나오기 전래인 52세까지 10年間으로 잡을 수 있다. 이期間 退溪는 부득히 出仕하면서 마음은 오로지 研學에 두고 있었다. 後期라고 할수 있는 時期는 53歲부터 「下世하기」까지 17年間이 이에 해당하게 된다. 이 期間은 몇차례 召命에 응하여 出仕는 하지만 대부분 辭賤疏를 올려 不就한 예가 많았다. 故郷에 있으면서 學問研究와 教育에 盡力했는데 그 많은 著述은 이 期間에 이루어졌었고 또 수 많은 論學의 書翰이 왕복 되었다. 그가 거듭될수록 退溪의 學은 完熟의 境地로 漸入되었었다. 그의 論學의 書翰과 著述의 중요한 것을 간추려 記錄하면 다음과 같다.

◇ 著述

上沈方伯

- 論四學儒生文(53세) 明宗8年 癸丑 1553
- 天命圖說(53세) 明宗8年 癸丑 1553
- 夙興夜寐箴(54세) 明宗9年 甲寅 1554
- 朱子書節要(56세) 明宗11年 丙辰 1556
- 啓蒙傳疑(58세) 上同
- 白鹿洞規集解(59세) 明宗14年 己未 1559

理氣問答往復書(60세) 明宗15年 庚申 1560

宋季元明理學通錄(60세) 上同

心無體用論(63세) 明宗18年 癸亥 1563

心經後論(66세) 明宗21年 丙寅 1566

戊辰六條疏(68세) 宣祖1年 戊辰 1568

西銘考證(68세) 上同

續蒙求(")

聖學十圖 및 劄子(68세) 上同

◇ 經筵講義

乾卦上九講義

西銘考證講義

◇ 論學書翰

(本論文末尾에 수록)

II. 退溪의 學問形成

1. 名利榮達의 超越

退溪는 사실상 官職生活에는 뜻이 없었다. 그것은 退去之念은 名利榮達의 超越로 나타난다. 세상의 名利와 榮達을 초월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관한 事實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한두가지만을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42세되던 中宗37年봄 刑曹正郎에서 弘文館校理로 전임된 것은 2月10日(辛酉)였다.¹⁾ 이어서 3月19日(己亥)에 御史로 忠清道를 暗行하게 되는데 그사이 2月末쯤이나 되었던가 어느날 弘文館에서 숙직하면서 梅花詩를 지었었는데 그 詩想이 너무도 高潔하고 端雅하여 名利와 榮達은 티끌만큼도 찾을 수가 없다.

뜰에 梅花한 그루 가지에 눈이가득	一樹庭梅雪滿枝
풍진속에 湖海로 꿈마져 수선하구나	風塵湖海夢差池
玉堂에 앉아 봄밤의 달을 대하니	玉堂坐對春宵月
기러기 우는 소리에 생각되는바 있도다.	鴻雁聲中有所思

또 金麟厚(號河西)의 귀향에 붙여 읊은 作別詩에 「그대는 세상이 빈배 같음을 알았는데」라던가 「富貴榮華는 뜬 구름」이라고 한 句節에서도 벌써 官職같은 것에는 아무런 미련도 없음이 나타나 있고 또 鄭惟一(號文峯)이 退溪의 言行을 말하는 가운데 「先生은 불래 벼슬할 마음이 적었고 또 그때의 時局이 크게 어려운 사정에 있었음을 보고 災卵

1) 王朝實錄에 의거했으나 退溪年譜 2月辛酉에도 副校理로 되어 있음.

(中宗38年)로부터 물러가 실 뜻을 결정하고 그뒤에는 여러번 불러도 항상 朝廷에 오래 있지 아니했다」²⁾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時局이 크게 어려운 사정」이란 己卯土禍의 餘震이 가시지 않을 뿐아니라 奸臣金安老一派에 의한 政權弄擅 그리고 大小尹의 結黨의 소용도리등 政勢의 激動을 의미한다. 이러한 渦中에 正道가 빛을 볼리가 없다는 判斷은 당연한 것이었다. 明宗實錄에 「李滉은 中宗朝에 비로소 仕路에 서으나 奸臣 金安老가 惡意로 물치리는바 되었고 그가 誅死된 후에는 歷數清顯이라 해도 언제 나날 退去之志가 있었다」³⁾고 기록되어 있어서 그간의 心中을 추측할 수 있다. 또 훗 退溪가 曹植(號南冥)에게 보낸 書翰에서도 官職에 미련이 없음을 솔직담백하게 서술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그 글을 다음에 적어본다.

나는 어릴때부터 옛聖賢을 思慕하는 마음이 있었을 뿐이었읍니다. 집이 가난하고 어머니가 연만하셨기 때문에 친구들이 억지로 科擧를 보고 벼슬길에 나서기를 원함으로 내 그 때에는 실로 識見이 없어서 곧 그 권유에 마음이 움직여 推薦書에 署名하고 보니 티끌속에 묻히여 날마다 거물이 없거늘 다른 것을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中略) 休暇를 얻어 벼슬자리를 떠나서 옛 書籍을 안고 故鄕으로 돌아가 아직체 이루지 못한 것을 求하자 하는데 혹시라도 하늘의 도움을 얻어서 舊에 —이라도 한푼 한치씩 쌓아 올리는데 얻는 것이 있다면 이 一生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10年이래의 뜻이요 소원이지만 聖賢이 하찮은 사람을 포용하시고 虛名이 사람을 놓아주시지 아니합니다. (中略) 精神이 늙고 몸이 病든데다가 공부도 健實하지 못하거늘 이르고서도 무엇이 이루어질까를바란다면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後略)⁴⁾

退溪의 마음을 이해하는데는 더할나위 없는 資料이다. 여기 「10年이래」의 시발은 癸卯年으로 보이며 또 이글에서 「한푼 한치씩 쌓아 올리는데 얻는 것이 있다」고 한 데서 退溪의 學問方法을 알 수 있어서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하다하지 않을수 없다. 뒷날 退溪는 李珥(號栗谷)에게 보낸 글에서 「學問은 積漸純熟하는 것이니 날을 두고 달을 두고 초조히 해서는 안됩니다」⁵⁾고 타일은 內容과 曹南冥에게 學究의 의사를 披瀝한 한군 한치씩 쌓아 올리려는 그 方法의 論理가 일치하고 있다. 積漸純熟을 直譯하면 「漸次로 쌓아서 純粹하게 익는다」인데 眞理에의 到達은 漸次에 의해야 하는 것이지 결코 飛躍이나 急進이 있을수 없다는 의미이다.⁶⁾ 이상에서 退溪가 退去之念을 굳게하고 있음을 살렸는데 다시 明宗實錄에 보면 「爲人이 淸簡하고 官이 놀다 해도 居家하였으며……」하였고 또 「爲人이 淸修苦節하고 榮利를 求하지 아니하였다」⁷⁾ 고

2) 退溪先生言行錄

3) 王朝實錄 明宗10年 5月己亥條

4) 退溪先生文集卷 與曹健中

5) 上同 卷 與子與叔獻

6) 「積漸純熟」과 退溪의 學問의 方法論에 관해서는 宋旼燮의 論文「理氣共在의 原則」참조. 慶北大退溪研究所 1976年 刊『韓國의 哲學』第6輯

7) ① 王朝實錄 明宗 9年 12月 庚辰條

② 上同 明宗 10年 5月 己亥條

도하고 있어서 사실상 退溪는 退去하여 鄕里에서 研學하려고 한것이 그 眞意였다고 할 수 있다.

退溪가 朝廷을 물러나 下鄕하기로 결심한 것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癸卯를 特記하고 있어서 中宗 38年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退去의 眞意

이상에서 退溪의 물러갈 결심을 살피거니와 그렇다면 그 당시의 時局과 물러가는 退溪自身の 動態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의 評價가 뒤따르지 않을 수 없다. 생각컨데 退溪가 「退去의 결심」을 하기에는 現實적으로 쌓여있는 弊習들의 要因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하던 芟除할수 있을 것인가하는 깊은 時局洞察이 있었다. 우리가 다시 역사를 살펴보면 그 당시의 時代相은 解初以來 여러차례의 政變과 燕山의 昏朝 己卯土禍 그리고 가깝게는 奸臣들의 弄奸으로된 構禍의 사실들이 露呈되고 있는 그러한 形勢였다. 이러한 흐름속에 退溪는 出生하여 成長했으며 또한 立朝하였었다. 이렇게 惡循環하는 要因을 근본적으로 除去시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감히 생각했었다고 觀察된다. 그리하여 急先務는 그와 같은 「힘」의 源泉을 培養하는데 있다고 退溪는 判斷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힘의 源泉 培養」에 관해서는 門人들 글에서 충분히 看取할 수 있다.

朴淳(號思庵)은 「언제나 君德을 輔養하여 士林을 鎮定시키는 것을 가지고 先務로 삼았다」고 하였고 또 鄭惟一(號文峯)은 「根本를 培養하고 士林을 扶植하는 것을 現在에 當하는 急務로 하였다」⁸⁾고 한데서 立證될 수 있다. 이 以外에도 奇大升에게 보낸 書翰에서도 黨禍가 일어나는 根本原因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對策이 무엇인가를 論述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즉

그러하지만 懷疑하게 됩니다. 우리東方의 선비들은 짐짓 그 뜻을 道義에 따를려고하는 겉으로만 대부분 世患에 부딪칩니다. 이것이 國土가 徧小하고 사람들이 열본탕이라고 하지만 역시 스스로 行하는 것이 다 未盡함이 있으므로서 그러한 것입니다. 이 「未盡함」이란 다름이 아니라 學이 未至한데도 自處하기를 太高로하고 때를가리지 않은 經世에 勇敢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失敗를 취하는 길로서 큰 使命을 업고 큰 일에 당하는 사람의 간절히 삼가야 할 점입니다. 그런 까닭에 公(奇大升)이 지금 道理를 행함에 있어서 自處하기를 높이지 말것이며 급작스레 經世에 勇敢하지 말것이며, 凡百을 주장함에 있어 지나치지 말것입니다.⁹⁾

이렇게 退溪는 屢弊의 要因을 두가지 점에 두고 있음을 알수 있다. 즉 하나는 선비들의 學의 未至에서 오는 自誇의 性癖과 다른 하나는 自己를 지나치게 높혀 經世濟民

8) 朴淳의 著書『行略』과 鄭惟의 著書『通述』참조.

에 분별없이 勇立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다른말로 하면 「學의未熟」과 「自己分の 不知」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退溪가 뜻하는 混亂한 時代를 匡正하는 힘의 源泉이란 研學 즉 道理의 探求와 守本分이란 것이었다. 奇大升에게의 타일음은 오직 그의 한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는 警告요 敎訓이라 해서 좋을 것이다. 이리하여 積弊를 打破하고 時局을 匡救하려는 데서 學問을 생각하였고 또 唱導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退溪에 있어서 學問하는 자세를 때로는 自己修養으로도 표현된다. 自己修養에 대해서는 역시 奇大升에게 答하는 別紙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德」을 崇尚하지 아니한데서 갑자기 經綸에 任하는 것은 鼎器속의 것을 뒤엎는데 해당합니다. 「誠」이 아직 참되지 못한은 스스로를 辟되게 하는 길입니다. 前人들의 失敗를 살피지 못해 거의 여기에 原因이 있습니다.¹⁰⁾

이리하여 學問하는데는 德을 崇尚하고 誠을 참되게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때 上述한 朴淳과 鄭惟一의 退溪에 관한 서술에는 더욱 깊은 의해가 가게된다.

이상에서 힘의 源泉을 培養해야 한다는 退溪의 心中을 살폈고 또 거기에 임하는 姿勢에 대해서도 보았다. 그런데 「退去의 결심」을 하게된 背景은 자신의 個性에도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退溪의 性格이 群居를 싫어했고 언제나 조용히 思索하는 學究的이었다고 하는데서 또 하나는 退溪는 自省之念이 강화하고 철두철미 謙虛했었기 때문에 그와같은 亂調의 時勢下에서 所任을 감당못함을 自覺했을 것이라는 측면을 들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觀察은 어디까지나 枝葉的인데 불과하다. 다음에 退溪의 言行을 다시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金誠一(號鶴峯)은 「先生の 愛君愛國의 마음은 進退에 따라 差가 있지 않았다. 어떤 政令의 善함을 들으시면 기뻐서 잠들지 못했고 혹은 舉措에 오류를 일으키면 매우 우려하였다. 언제나 君德을 輔養하고 士林을 扶護함을 가지고 先務로 삼았다.」¹¹⁾고 하였고 또 鄭惟一은 「물러난지 여러달이 되었다 해도 愛國之念은 老境에 이르러 더욱더 敦篤하셨고 왕왕이 공부하는 사람들과 國事に 말이 미치면 느껴서 感憤하셨다」¹²⁾고 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門人들이 기록한 逸話는 枚擧하기 어려우리 만큼 많아 이 정도로서 略하기로 한다.

「물러가는 결심」을 한 退溪는 世上을 등지고 草野에 숨은 隱遁者가 아니요 혼자만의 保身을 위한 逃避者도 아니며 또한 再起를 耽視하는 機會主義者도 아니며 被害에 戰慄하는 卑怯者도 물론 아니다. 累積된 弊端의 混亂을 꿰뚫어서 이것을 匡救하는

9) 自省錄

10) 退溪先生文集 卷十六 答奇明彥別紙

11) 上揭 言行錄三, 金誠一

12) 上同 鄭惟一

源泉의인 힘을 탐구했을 뿐이다. 探求하는 源泉의인 힘 이것이 退溪에 있어서의 「學」이며 退去之念은 이것이 成就를 위한 念願이었던 것이다.

Ⅲ. 學의 意味

「사이언스」(Science) 또는 「비젠사프트」(Wiesenschaft)라고 표현되는 이른바 「學」은 知識의 組織體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學」은 하나하나의 知識이 必然的 連關에 있어서 結合되어 하나의 全體를 形成한 것이라고 함이 일반적인 의미이다. 이를테면 實驗에 의해서 知得한 個個의 知識등을 學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와같이 組織體라는 것을 體系라고 함으로 學이란 體系化된 知識이라고 하게된다. 이상과 같은 學의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退溪의 學은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해서 退溪의 知識은 어떻게 體系化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理의 探求

退溪는 少年時節에 萬物의 根本이 되는 「理致」 즉 理가 무엇인가를 探求하였다. 이러한 探求의 사실이 記錄에 나타난 것은 일찌기 12세때 부터였다. 退溪는 叔父인 李堦公(號松齋)에 論語를 배웠는데 이 사실은 기하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공부하던 어느날 論語가운데 나오는 理를 묻기를 「무릇 일의 옳은 것이 理입니까」하고 反問하였었다. 松齋는 기뻐하면서 「네가 벌써 글 뜻을 아는구나」하였다고 傳해 온다.¹³⁾

이 한 句節에서 退溪는 萬物의 根源이 되는 根本理致가 무엇인가를 探求하고 있었던 것은 명백하다. 생각하면 晩年에 이르러 退溪學의 大成이 이룩된 것도 실은 여기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理致의 탐구는 그의 詩想에서도 엿볼수 있다. 18세때 作詩한 首를 다음에 吟味해 보기로 한다.

고운물이슬에 젖어 물가를 들렀는데	露草天天繞水涯
고요한 맑은 못에 모래도 없네	小塘清活淨無沙
구름이 가고 새가 날라 제각기재돈대	雲飛鳥過元相管
때때로 나는 제비 물결 찰까 두려워라.	只怕時時燕蹴波

이 詩作의 動機는 溫溪에 가까운 燕谷에 가서 놀다가 그 洞內에 있는 조그만한 못물을 내려다보고 느낀데 있었다. 못물이 너무도 맑아 평소의 心中을 율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이 詩는 人間의 「理」 즉 本性의 純粹함을 강조한데 그 진의가 있었다. 門人

13) ① 退溪先生年譜 中宗元年丙寅條
 ② 退溪先生言行錄
 ③ 長齋先生文集卷六 溪山記善錄上

金富倫(號彥遇)은 이詩를 評하여 天理가 流行하는 人間事로 말미암아 가리워 질까하는 염려요 또 착한 사람의 本性이 物欲으로 因하여 그르칠가 두려워 하였다고 하였다.¹⁴⁾

이와같이 「理」는 自然界와 人間界에서 所以者로서의 성격을 갖는다.¹⁵⁾ 人間界의 所以者로서의 理는 「當爲」의 성격으로 된다. 이래서 理를 몸으로 認識하는 것은 人間의 倫理的 義務인 것이다. 이러한 理에 대한 認識을 「爲己之學」이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럼 다시 「爲己之學」의 概念을 통해서 退溪의 理의 探求를 살펴보기로 한다. 退溪는 爲己之學을 이렇게 定義하였다. 「爲己之學이란 道理를 우리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것으로 삼고 德行을 우리들이 해야할 것으로 삼아서 먼 것보다 가까운데서 공부하는 마음으로부터 얻어서 몸소 行하기를 期約하는 것」¹⁶⁾ 이것이 退溪의 爲己之學이었다. 이러한 定義를 분석해 보면 거기에서 파악되어지는 네가지 項目이 있다. 즉 첫째 道理를 알아야 한다. 둘째 德行을 해야한다. 셋째 먼것보다도 가까운데서 그리고 몸소 行해야하는 등이다. 이 넷은 道理를 아는 것과 實行에 努力해야 한다는 두 要目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두 要目を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 마땅히 그것을 마음으로 부터 얻어서 몸소 躬行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래서 爲己之學은 道理를 알것과 그것을 實行하도록 努力할것 그리고 그 방법으로 가까운데서 먼곳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으로 되겠지만 줄여서 知道理・務實行 이것이 退溪의 學의 大綱이라 할 수 있겠으며 退溪哲學에서 中心課題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다시 간추리면 前者는 認識이요 後者는 實踐의 問題로 된다. 爲己之學의 立場은 당연히 爲他之學을 排擊하게 되는데 退溪는 「爲他之學은 마음으로부터 얻어서 몸소 行하기를 힘쓰지 않고 거것을 꾸미고 바깥을 따라서 이름을 求하고 稱贊을 취하는 것」¹⁷⁾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서 알수 있듯이 退溪의 名利排擊은 철저하였다. 한사실을 들어보자 金富倫이 易東書院의 學田收入이 부족하니 그 解決策으로 糧穀을 모아 利息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意見을 退溪에게 물었던바 退溪는 「利息의 두字는 선비가 아예 말할바가 아니다」¹⁸⁾라고 한마디로 꾸진 일에서 알 수 있겠다. 「爲己」의 姿勢는 退溪의 말에 따르면 이러하다. 「술속에 있는 蘭草가 온 종일 香氣를 피우지마는 스스로는 그 香氣로움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하고 「이것이 君子에 있어서 爲己의 뜻에 꼭맞는 말이니 마땅히 깊이 새겨야 할것」임을 門人李德弘에게 타일이고 있다. 李德弘과 對話한 退溪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느날 李德弘은 자기 性質의 結합

14) 退溪先生言行錄

15) 朱子語類五 性理呂壽錄에 「在事做理・在人做性」와 程氏遺書二二上에 「性即理」라고 한것에 의해 증명된다.

16) 退溪先生言行錄

17) 上同

18) 上同 金誠一

을 어떻게 하면 矯正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문의하였었다. 이 무렵에 대해서 退溪는 「오직 理를 밝히면 甞할 수 있을것」이라고 했는데 理의 認識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⁹⁾

明宗 4年己酉에 退溪는 豐基郡守로 있었다. 이해 6월에 門人 趙穆(號月川)이 찾아온 일이 있었는데 이때 그는 學問의 뜻을 이야기 하였던바 退溪로 부터 옳다고 칭찬을 받은바 있었다. 이때 趙穆은 「學問은 한갓 책을 읽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널리 見聞을 넓혀야 하고 義理에 있어서도 혼자 생각할 것이 아니라 스승이나 벗들의 도움과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말을 들은 退溪는 매우 상쾌히 여겼다. 그것은 趙穆의 學問觀에 聖人の書(經書)에서 眞理를 認識하고 그것을 널리 經驗을 통해서 實踐하려는 努力을 해야 하겠다 하는 眞意를 엿볼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文學만 힘쓰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緊要한 것이니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였다.²⁰⁾ 여기서의 文學은 詩·詞·賦등 이른바 詞章을 의미한다. 詞章에 대해서 退溪는 未流라고 하여 前記한 學 즉 爲己之學의 概念에 넣지 않는다. 詩에 관해서는 鄭琢(號藥圃)에게 준 글에 「詩는 未技요 그것은 性情에 根本한다」²¹⁾고 하였고 또 文藝에는 技巧가 있어서 그것은 儒가 아니라고 하였다. 여기의 儒는 學問을 의미한다. 즉 「儒家の 뜻에는 스스로 구별이 있으니 文藝를 工(技巧)함은 儒가 아니요 科第를 取하는 것도 儒가 아니다」²²⁾하였는데 退溪가 詩등 文藝가 本質적으로 學이 아니라고 否定한 것은 知道理 務實行의 學의 概念에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趙穆은 그로부터 2年뒤인 明宗6年 辛亥正月에도 退溪를 만나 종일토록 學에 관해서 論하였었다. 이때 退溪로부터 立志가 篤實하지 못한 行實에 대해 警戒의 訓을 받았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辛亥年은 退溪 51歲되던 해로서 不仕하고 在鄉하였을 때였다. 豐基郡守에서 解官해 줄것을 監司에게 세번 요청했으나 결국 그 回報을 기다리지 않고 歸鄉하고 말았는데 明宗 4年12月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다음 해인 明宗5年 正月에 告身二等을 削奪當하는 懲戒를 받게되었다. 退溪는 在鄉하면서 터를 잡아 堂을 지어 讀書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갖는 餘暇였다. 이때의 詩 한首를 읽으면 당시 退溪의 心境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벼슬서 물러나니 나의분 편안한대
학문이 퇴보하니 늦게가 염려로다
퇴계에 가까이 삶을 정하니
날로 나를 살림이 있더라

身退安慰分
學退憂暮境
溪上始定居
監流日有省

19) 上同 李德弘

20) 上同 趙穆

21) 退溪先生文集卷 三五與鄭子精

22) 退溪先生言行錄卷二 「儒家意味自別・工文藝非儒也・取科第非儒也」

이로부터 從遊之士가 날로 모여들었었다. 이런 까닭에 辛亥年 이 한해는 不仕하고 家居하고 있었으며 退溪가 召還된 것은 그다음 해인 明7宗年壬子4月 弘文館校理로서였다.

2. 本分の 自覺

退溪의 學의 概念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道理를 알고 그것을 實踐으로 옮겨 完遂하는 「知道理 務實行」에 있었다. 그러므로 자연히 退溪의 學의 概念을 論하는데 또하나 說明을 요하는 것이 있게 된다. 그것은 形而上學이라는 점이다. 形而上學 (metaphysics)에서 온 譯語이지만 원래는 希臘語의 meta(뒤라는 意味) Physica(自然學)의 結合語이며 Aristotele의 著作을 編輯할때 自然學的論究의 뒤에 配列된 一群의 論文이 이 名稱으로 불리워진데 根據한다고 함은 周知하는 터이지만 그러나 이 形而上學의 概念은 固定된 것이 아니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매우 多義하게 使用되어 왔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모든 存在者一般에 걸치는 原理, 存在者로 하여금 存在者되게 하는 原理의 檢討이다. 여기서부터 meta가 超越로서의 의미 즉 trans로 解釋되었다. 그리하여 形而上學은 變動하는 經驗的 規定과의 相對性을 넘어서 上住하는 것을 探求하는 것으로 생각되게 되었다. 이에 隨應해서 學的인 遂行性格도 經驗的, 自然的認識의 超越이라는 性格을 갖는다. 形而上學의 概念을 대체로 이렇게 보고서 退溪의 學이 形而上學이라는 規定은 우리의 經驗的 世界를 超越하지 않음을 뜻한다. 變動하는 經驗世界를 學의 領域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된다. 眞理는 人間界를 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日常生活 가운데 存在한다는 데 있다. 여기서 日常生活에서 어떻게 處하느냐 하는 自己認識이 중요한 課題가 된다. 自己認識은 自己本分の 判斷인 것이다. 이것이 退溪學의 體系를 이루는 基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던 本分の 判斷이란 어떤 것인가를 다음에 보기로 한다. 退溪가 李德弘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다. 즉 「本分 그밖에는 털끝 만큼도 더하지 말라」²³⁾ 이렇게 本分을 지키겠끔 行爲하라는 가르침은 退溪가 늘 學者에게 하는 말이였다. 爲己之學의 立場은 爲他之學을 排擊한다고 한 上述한 바와 같이 自己認識은 당연히 一身의 榮達을 기하는 名利論을 물리치게 된다. 일찍이 退溪는 世上사람들은 名利에 빠졌다고 嘆息하면서 「哀惜하게 여겨서 손을 마주 잡으며 한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들은 깊히 反省하게 하여 小人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²⁴⁾ 그 하였었는데, 反省하게 하여는 自己本분이 무엇인가를 살필을 말한다.

하루는 奇大升과 함께 앉아있더니 退溪는 「우리는 제각기 마땅히 힘써서 二名(本分)에 맞도록 할것이요 虛한 名聲으로 慘禍를 입지 말아야 할것이니 어찌 서로 贊成

23) 上揭 言行錄 李德弘

24) 上揭言行錄 金誠一

하지 않겠는가」하였다.²⁵⁾ 여기의 名은 名分이요 本分이라는 뜻이다. 退溪의 活動期는 史稱 乙巳士禍로 비쳐진 政爭의 渦中이었었다. 慘禍란 이 政爭의 樣相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自己認識 즉 本分을 알라고 강조 하였었다. 中宗末期부터 明宗一代는 우리 歷史上 混亂이 가장 長期的으로 持續된 時期였다. 그 時代相의 言及은 여기서는 省略하기로 하거니와 學問의 概念과 관계되는 科擧에 대해서만 論及하기로 한다. 이 時期의 科擧에는 그 弊端이 많아 이른바 科弊의 記錄들이 王朝實錄에 散見된다. 退溪의 言行錄에도 科弊에 관한 對話가 記錄되어 있어 그 狀況을 알려주고 있다.

退溪는 「오직 글씨를 외어서 科擧보는 일만을 業으로 삼아 自己의 몸이나 마음에는 끝내 관계하지 않으니 이런 病弊에 빠진지가 이미 오래되어 다시는 마음을 일깨워 주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觀察하였다. 그렇지만 「만일에 『朱子書節要』를 科擧에 쓰게 되면 그와 같은 弊端이 없어질 것」이라고 그 是正策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이 節要를 읽으면 그 내용이 사람을 感動시켜 憤發하게 하므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가게 한 수 있기 때문이었다. 『朱子書節要』(全20卷10冊)는 明宗11年 그의 56세때 완성한 것으로 朱子가 公卿大夫・門人・知舊에게 준 왕복書簡중에서 學問에 관한 것과 學者에 진오한 부분을 추려서 편집 거기에 退溪자신의 설명을 붙였다. 退溪는 朱子의 書簡의 解讀에 힘을 傾注하여 이 節要를 著作한 것은 朱子의 全人格과 그 學問 그리고 敎育의 참모습이 그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感憤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 『節要』는 退溪의 著作가운데서도 가장 著名하거니와 日本으로 傳해져 日本儒學의 創建에 至大한 影響을 미쳤었다.²⁶⁾ 退溪는 이 책을 目評하기를 「聖人의 學問은 四書에 있으나 선비로서 學問에 뜻을 둔 사람이면 이 『朱子書節要』를 버리고 무엇을 볼 것인가」라고 하여 人間道理의 實踐과 學問하는 指針書로 賞識하였었다.²⁷⁾

이렇게 道理를 認識하고 그것을 躬行하는 것은 退溪의 學問的 信念이었다. 趙穆에게 「근으르 行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은 나의 부끄러워하는 바」라고 하였고 金秀卿에게 回答하는 글에서도 이점을 결실하게 강조하고 있다.

「나는 선비가 學問을 한다고 하여 어찌 三釜五鼎의 생활을 원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다 運命이 있어서 꼭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들도 또한 그것을 運命에 맡겨두고 우선은 나에게 있는 것을 닦기만 하였다」여기의 三釜五鼎은 솥(釜) 셋, 세알(斗) 다섯으로 料理를 지어먹는다는 의미로서 富裕를 比喻한 말인데 卿大夫 등 富貴층들의 생활을 표현한 것이다. 결국 學問으로 富하리라는 생각을 하지말라

25) 上尙言行錄 禹性傳

26) 河崎吉雄著 「日本朱子學と朝鮮」(東京大學出版會, 1965年) 259面以下 참조.

27) 上尙言行錄 論科擧弊 金誠一

는 뜻이다. 學問을 닦는 것과 致富는合一될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어서 退溪는 「나는 金秀卿이 반드시 物質에 빠지지 않을 것만은 믿을수 있으나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病痛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하였다.²⁸⁾ 또 金誠一이 科擧에 걸리어 學問에 專念하지 못함으로 科擧일은 그만두고자 할 뜻을 말한데 대해 退溪는 그뜻은 매우 좋으나 쉬운 일이 아니리라고 하면서 科擧는 學問을 達成할 수 있는 길이 못됨을 말하였다. 退溪는 實例를 들어 설명한다. 즉 「옛날 蔡伯靜이라는 사람은 그 兄弟가 다같이 科擧를 外面하고 오로지 學問에만 뜻을 두어 마침내 家業을 전하여 세상에 알려진 大學者가 되었다.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나. 그러나 科擧의 길을그만둔다 하더라도 學問의 길을 닦지 않으면 역시 學을 達成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여 學問의 길은 學問의 길로서 獨存해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退溪는 蔡氏의 行狀을 내보이면서 「그대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겠는가」하면서 自己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격려하였다.²⁹⁾

鄭士誠이 經書를 외워서 科擧준비를 하는 것이 學問하는데 害가 되지 않겠는가를 退溪에게 물은 일이 있었다. 退溪는 「나라에서 科擧를 베푸는 것이 어찌 선비들이 學問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겠는가. 그런데 內와 外・輕과 重의 限界는 스스로 分別해야 할것이다. 만일 이 判斷을 분명히 말한다면 聖人의 經傳을 외워 통하는 것이 어찌 學問하는 것이 아니겠는가」고 하였는데 限界를 스스로 分別해야 한다는 句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³⁰⁾ 退溪는 書齋에서 한자리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儒家의 의미는 「스스로 分別」하는 것이니 文藝에 巧妙한 것도 儒가 아니요 科擧에及第하는 것도 儒가 아니라고 하였다.³¹⁾

이와같이 그당시 道理를 探求하고 그것을 認識하는 것과 그것을 實踐하려는 努力이 얼마나 劣勢였느냐를 알수 있는 反面에 名科榮達을 追求하는 氣風이 充滿되어 있었던가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退溪는 이러한 世態에서 많은 젊은 이들이 世俗의인 그릇된 氣風에 허덕이고 있음을 嘆息하면서 「다시 어떤 사람이 이 科擧의 허방(臼)을 헤쳐 버서날 수 있게 하겠는가」하고 期待하였던 것이다.³²⁾

3. 異端의 排擊

여기서의 「異端」은 基督教에서의 異端의 의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異端이란 이 말이 儒學에 있어서 생소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찌기 孔子의 말로 論語

28) 上同 言行錄 論科擧弊穆

29) 上同

30) 上同

31) 上同 言行錄 鄭士誠

32) ① 論語 爲政篇에 「子曰. 攻乎異端. 斯害也已.」

에 보인다. 孔子는 「異端을 공부한다는 것은 害로우 뿐이다」³³⁾ 그래서 異端을 實生活에서 遊離된 주장을 의미였다. 論語에서 異端은 小道와도 뜻이 밀접하다. 子夏의 말을 살펴보면 「小道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불만한 것이 있을 것이나 그것을 멀리까지 따라간다면 執着할까 무서워서 君子는 그런 것에 종사하지 않는다」³³⁾고 했는데 小道는 百家의 衆技요 大道는 人倫道理라고 구별함으로 人倫道理밖의 것이 小道요 따라서 異端으로 된다. 그런데 基督教에서의 異端의 概念은 이와는 근본적으로 相異하다는 점을 참고로 敷衍해 둘까 한다 「헤이레시스」(haireisis)라고 하는 「異端」은 원래 古文獻에 있어서는 學問, 宗教, 政治上의 일정한 見解 및 그 見解를 支持하는 사람들을 의미했었다. 그러나 現代에 와서는 正統的 教會의 일부 敎理에 矛盾되고 혹은 相異한 解釋을 하는 說 또는 教會의 信仰과 相容않되는 敎說 때문에 教會로부터 離反되어 別派를 이룬 宗派를 指稱하게 되었다. 따라서 領先者에게 대해서만 적용됨으로 領洗者만이 異端者로 되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背敎와는 다르다 背敎者는 基督教의 가르침을 완전히 拋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비교해 보면 儒學에서의 異端의 概念은 스스로 명백하게 된다. 그러한 異端의 概念은 오늘날에 있어서 儒學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이다. 退溪에 있어서 異端은 佛敎과 陸王說이었다. 退溪는 異端보기를 마치 陰蕩한 소리나 嬌態를 부리는 女人얼굴과 같다고 하였다.³⁴⁾ 그러므로 佛敎과 象山・陽明學과는 嚴絶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사람들이 이 異端과 嚴絶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염려하였었다. 이 退溪의 염려의 裏面에는 그단시 佛敎는 물론 象山 陽明學이 思想界에서 매우 盛勢였었다는 사실을 反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人倫道理와 그 實踐을 崇尚하는 이른바 正學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退溪學의 基本的인 指向이었다. 그 노력의 하나가 『理學通錄』의 著述이다. 『宋季元明理學通錄』(全卷外集1卷)이라고 하는 이 著書는 退溪가 南宋의 朱子로부터 元・明에 이르기까지 道學者들의 言行을 記述하여 正統을 바르게 傳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考閱의 편의를 圖謀하게 한 것이었다.³⁵⁾ 宋・元・明대의 여러 著書에 散見되는 것을 蒐集 망라하여 退溪自身の 學의 概念에 따라 取舍選擇한 다음 評價를 붙였다. 또 學者로 하여 異端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陸象山學派를 따로 敍述別添하였다. 人倫道理와 認識과 그 實踐 이 두가지는 退溪學의 骨幹이었다.

退溪는 당시 明末의 中國學者들에 대해서 「그들은 모두 佛敎에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일찍이 批判하였었다. 그래서 『白沙詩敎』에 跋文을 쓰고서 또 王陽明의 『傳習

② 論語 子張篇에 「子夏曰・雖小道・必有可觀者焉・致遠恐泥・是以 君子 不爲也・」

③ 車柱環교수의 翻譯書 「東洋의 知覺」중 論語篇 참조

33) 上揭 言行錄

34) 『宋季元明理學通錄』은 退溪在世時는 未刊이었다. 그후 門人趙穆等에 의해서 宣祖9年(1576) 安東에서 刊行되었다.

35) 退溪先生文集 雜著

錄』의 解說을 통해서 그것이 佛敎의 禪思想의 影響임을 밝혀 程朱등 다른 儒學者와의 성격의 混同을 막을려고 한것도 人倫道理의 認識과 그 實踐을 강조한데서였다.³⁶⁾ 『白沙詩教』는 明의 陳獻章의 詩集인데 陳獻章은 廣東省 新會의 白沙里 사람이다. 里名을 自號로한 當代의 著名學者이다. 王陽明의 著述은 『王文成公全書』(全38卷)에 收錄되어 있으며 그 外 詩文集이 있고 또 그의 語錄으로는 門人徐愛가 撰한 『傳習錄』이 있다. 그런데 이 두學者의 思想은 南宋 陸象山の 影響을 받고 있다. 退溪의 思想과는 어떻게 다른가를 참고하기 위해 다음에 象山, 陽明學의 概要를 잠시 記述하기로 한다.

陸象山(1139~92)은 名을 九淵이라 하여 朱子(1120~1200)와 同時代의 學者이나 學說은 서로 對立되고 있었다. 鵝湖라는 곳에서 朱子와 會見하여 學을 論辯하였지만 결국 結論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史上「鵝湖之會」라고 하여 유명하거나 象山의 思想은 儒學中에서도 가장 禪宗哲學에 가까웠다. 그는 天理와 人欲, 人心과 道心을 구별하는데 反對하고 오로지 宇宙에 充塞하는 하나의 理를 생각, 宇宙 即 吾心이라는 主觀的 觀念論을 媒介로하여 「心即理」說을 주장했다. 理는 先天的으로 人間의 마음속에 賦與되어 있다고 한다. 그것은 孟子가 말하는 良知良能(心)³⁷⁾에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天理·人欲을 구별할 필요가 없고 오직 人間이 갖는 良知 즉 善한 本性을 信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있다. 결국 宇宙의 本體인 理는 나의 마음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宇宙의 根本은 나의 마음 그것이라고 하는데 있다. 이것을 心即理라는 命題로 표현하거나와 그래서 象山은 讀書나 學問보다도 內省을 중시하고 實踐보다는 群坐이 의해 主觀的 直覺의 眞理를 탐구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王陽明(1472~1523)은 名을 守仁이라고 하며 明나라 末期의 학자였다. 그뒤 卒年은 우리나라 中宗28년에 해당하며 退溪보다는 29歲 年上이 된다. 그의 思想은 이미 言及한 데로 象山觀을 계승하였는데 結論적으로 말하면 陽明은 象山「心即理」說의 秘奧를 開發했다고 할 수 있다. 陽明學은 主觀的 直覺的인 眞理探求가 어떻게 해서 可能한가 하는데서 출발하였다. 여기에는 象山學에서와 같이 「良知」의 存在가 前提로 되어 있다. 人間에게는 良知가 마음속에 內在해 있어서 이 良知의 必然的인 意志로서 人間의 行動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善惡을 判斷하는 良知가 先天的으로 存在하고 있어서 그것을 信賴하여 自由로히 行動해도 좋다고 하는 것이 그 要點이다. 學問에 뜻하는 사람은 먼저 自己의 良知를 內觀知悉한다면 漸次로 明確公正의 度가 더해져 그것에 따라서 一身의 言行은 점점 慎重妥當해지고 見識도 政治能力도 스스로 向上되어 간다. 이것을 「知良知」라고 하며 이렇게 行爲가 良知와 일치 할

36) 孟子의 告子篇上

37) ①陽明學에 관한 柳西厓의 反論은 西厓先生文集 雜著의 各篇과 卷詩에 「讀陽明詩有感二首」 참조

② 宋菴叟의 論文「西厓先生의 陽明學批判」(西厓先生紀念事業會 1978年刊『西厓研究』 第二號 수록)참조.

수 있다고 하는데 「知行合一」이라고 한다. 陽明學을 「知行合一」說이라고 하게 되는 所以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良知」를 知得하는데 있으며 그러하기 위해서 靜坐를 통한 內省의 깨다름이 그 法으로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이들의 儒學을 「禪的儒學」이라고 하는 것이다. 象山學과 陽明學의 形成出現했다는 사실은 儒學史에서 본다면 큰 變化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³⁸⁾ 이상에서 概觀한 바와같이 象山과 陽明에 있어서는 眞理는 마음속에 內在해 있다고 함으로 內省直觀을 方法으로 했으나 退溪는 實踐과 아울러서 眞理에의 도달을 기하는데 있으니 眞理의 客觀性과 이에 대한 人間努力이 要求되는 그러한 사상이다. 그래서 각각의 特性이 명백함을 알수 있는 것이다. 退溪는 「人間努力의 要求」 여기에서 나르 그 直道와 異端을 限界짓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象山과 陽明學은 우리 나라에의 傳來가 언제부터인가를 잠깐생각해 보면 中宗實錄 37年5월에 당시 禮曹判書金安國은 中國서 傳來한 圖書 十餘種의 國內刊行을 건의 했는데 象山集이 들어있다. 이 象山集이 언제 國內에 들어 왔는지는 未詳이지만이 記錄에 의해서 既히 있는것만 사실이며, 또 再刊할 필요를 인정한 事 情으로 볼때 象山集이 學者에 읽히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여진다. 이리하여 國內刊本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象山學은 劣勢이기는 하지만 그런데로 普及되어 간것으로 推測된다.³⁹⁾ 다음 王陽明은 宣祖實錄26年4월에 처음 보인다. 이때는 壬辰倭亂을 겪고 있는 戰時였으니 王陽明의 用兵策에 관해서는 소중히 여긴 듯하나 기타 學問의 人 諸說은 철저히 排擊하는 重臣들의 御前에서의 對話가 記錄되어 있다. 그런데 이때 陽明學에 熱中하는 學者가 있었다. 南彥經(生年未詳)과 그의 門人인 宗親慶安令瑤등이었다. 慶安令은 王에게 南彥經의 學說과 아울러 陽明學을 찬양하였다.⁴⁰⁾ 이렇게 보면 宣祖中期 즉 1590年代이며 陽明學이 우리 學界에 뿌리를 내려지고 있었음을 알수 있겠다. 그러나 이에 앞서서 柳成龍(號西厓)은 陽明學에 극력 反論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는 28세때인 宣祖2年에 從事官으로 中國에 간 일이 있었다. 이때 北京에서 宮中에 入闕을 기다리다가 다칠 太學生들을 만나 陽明學의 非에 대한 討論한 사실이 있었다.⁴¹⁾ 이 사실을 참작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陽明學은 明宗初期경 學者들 사이에 研究되고 있었다고 推測할수 있음으로 그 傳入은 이보다는 약간 前及하여 中宗末期 즉 1530年代로 잡을수 있겠고 그렇게 볼때면 王陽明死後(51세) 바로 傳來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陽明學定着은 兪溪의 活動期와

38) 中宗實錄 中宗37年5月丁亥日條에 禮曹判書金安國이 可印書冊을 奏함은 가운데 象山集 宋朝巨儒陸九淵所著先生與朱子 一時專心於尊德性, 往復辨論. 雖與朱子 異趨心悟六學, 因得以講明學者崇尚程朱之教, 參考此集則不無有益.

39) 宣祖實錄 宣祖26年 癸巳4月戊子條以下. 특히 南彥經・慶安令瑤의 陽明學찬양의 記錄은 實錄宣祖27年甲午7月8日條 참조.

40) 西厓先生文集年譜宣祖2年己巳條

그 時期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또한 사탄 즉 羅整庵의 비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退溪는 盧守愼(號蘇齋)의 困知記를 지나치게 찬양하는 것을 보고 「羅整庵의 學問은 스스로는 程朱의 異端이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表裏를 달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羅整庵의 태도를 罪人이라고까지 極論하였다.⁴²⁾ 整庵은 羅欽順(1465~1547)으로서 前記 王陽明과 같은 時代에 활약한 哲學者이다. 困知記는 그의 著述인데 우리나라에는 아마 陽明學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傳來된 것으로 推測되는데 明宗初期 學者들에 상당히 읽혀진 듯하다. 그런데 困知記에서의 整庵의 理氣說은 主氣的인 입장이었고 이와같은 그의 主氣說에 대해서 退溪는 非라고 단정하였다. 그것은 奇大升에게 보낸 「四七問答」의 第二答書에 論述되어 있거니와 그의 主氣說은 上述한 退溪의 學의 概念에 어긋나는 學說이기 때문이다. 奇大升도 困知記跋文을 지어 整庵說을 배척하였다.⁴³⁾ 退溪는 盧守愼의 그러한 思想을 매우 危險視하였으며 그뿐만이 아니라 장차 이 나라에서의 象山學이 流行하여 學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을 슬뻐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整庵의 主氣說流行의 阻止를 奇大升에게 期待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李德弘의 問目에 대한 答書에서 찾아볼 수 있다. 退溪는 「蘇齋는 陸象山의 見을 固執하니 매우 두려운 일이다. 그런데 高峯이 막다른 危險에서 다시 努力을 더하여 나아간는지 모르겠으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陸象山의 學問이 다만 中國에서만 盛해지는 않을 것이라」고 展望하면서 奇大升을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⁴⁾

끝으로 佛教에 대한 嫌惡를 살펴 보기로 한다. 佛教에 대한 退溪의 嫌惡는 크게 두 가지 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는 出家修道는 人倫의 破壞요 둘째 「이달음」(悟)이라고 하는 直觀은 非實踐이라는 데 있다. 退溪에 있어서는 屢言하는 바 道理의 探求와 그것의 躬行을 尊重하는데 있었음으로 「積漸進德」한다는 漸進을 本領으로 重視하기 때문에 眞理에의 到達은 實踐없이 不可能하며 無意味하다고 하기 때문이다.⁴⁵⁾ 上述한 바 象山陽明學을 異端으로 규정하여 철저히 내격한 것도 바로 이점에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佛教가 退溪思想에 受容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다음에 드는 사실은 煩瑣하기는 하지만 退溪의 佛教에 대한 嫌惡가 어떠한가를 알기에 족할 것이

41) 上揭言行錄

42) ① 「四七問答」에 관해서는 退溪先生文集卷十六 「答高峯四端七情分理氣辯」과

② 高峯先生文集의 理氣往復論卷之一 「退答溪 高峯四端七情分理氣辯」 참조.

③ 退溪의 理氣相互關係에 관해서는 宋兢堂의 論文 「理氣互發說考察」(慶北大 退溪研究所 1977年刊 『韓國의 哲學』 745頁 수록) 참조.

④ 奇大升의 困知記跋文은 高文集에는 보이지 않는다. 六文은 退溪言行錄五篇二學篇 金叡一錄에 의한 것이다.

43) 上揭言行錄五 崇正學 李德弘

44) 退溪에 있어서의 「眞理」는 漸進의 因에 있었다. 이 漸進法에 관해서는 宋兢堂의 論文 「退溪哲學에 있어서의 理氣共在의 原則」(上研究所 1967年刊 『韓國의 哲學』 第6輯 수록) 참조

다. 退溪는 젊어서 故鄉에서 가까운 靑涼山에서 놀다가 『白雲菴記』를 지은 일이 있었다. 白雲菴은 그산의 菴子인데 그곳 僧이 「記」를 새겨 菴子 壁에 붙여 두었다. 退溪는 晩年에 가서야 그 사실을 듣고 곧 떼어 버리라고 하였다. 또 다른 事例로 僧들이 와서 詩를 請하면 비록 거절은 하지 않았지만은 다만 自然의 景致만을 적어주고 佛敎에 대해서는 한자도 記述하지 않았다. 晩年에는 그런 作品마저 거의 없었다.⁴⁵⁾

退溪는 이렇게 象山・陽明・白沙 그리고 整庵등의 學說을 異端이라 규정하고 傳統 儒學과의 相異를 辨別했음은 우리나라 儒學史上 특기하는 사실이라고 할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 趙穆은 「白沙와 陽明은 그말이 모두 程・朱道問의 氣象과 같지 않다. 先生(退溪)이 힘써 분별함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疑惑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 것은 결코 우연히 한말이 아니었다.

× × ×

이상에서 退溪思想에 있어서 「學」의 概念을 논술했다. 그의 「學」은 知道理・務實行이었고 동시에 그어느 한쪽의 輕視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었다. 知道理・務實行의 並進 이것이 退溪의 學이다.

45) 上揭言行錄五 崇正學

46) 上同 金誠一